

“저수지는 지역 향토자산 수상태양광사업 민간이양을”

농어촌공사 추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올스톱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무안 구정 1,2지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등 올해 전국 14개 지구에서 수상태양광사업을 발주했거나 발주 준비 중에 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대로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 곳, 바다를 막은

방조제는 144곳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공사의 당초 목표와 비교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초라한 실정이다.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민간 자원을 유치해 추진하려던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들은 모두 올스톱 상태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남 나주호, 장성호, 해남방조제, 전북의 청호호, 옥구저수지 등이 사업대상이었다.

이처럼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중단·보류된 데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제처는 당시 농림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오직 농어업 시설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 때문에 태양광 관련 업계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폭을 넓히고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리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는 게 좋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 역시 “저수지는 주민들의 향토자산”이라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정책을 전면 전환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담수호 주변 지역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강제수몰된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역사적 정서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나주호 상류인 전남 나주시 다도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정모씨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 에너지복지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인력양성 간담회 개최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에 따라 자동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시청 협업회의실에서 지역 직업계고등학교 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시교육청 및 직업계고등학교장, ㈜광주글로벌모터스지원단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시는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지리를 소개하고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양산체제에 도입하는 시점에 맞춰 지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등학교장들은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지역 직업계고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 의견수렴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특성화고 지역 인재 전형 도입 및 공업계, 상업계 등 고등학교도 채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내년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및 자동차 관련 업체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에 실습기자재를 지원하고 자동차 관련 전문기술을 익혀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최근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직업계고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취업정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며 지역 직업계고 등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고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광주 동구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예술의거리 미로센터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미로스쿨 ‘예술가, 나야 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자원 및 인력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은 연령대에 맞는 놀이중심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서구,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성료

광주 서구가 개최하는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가 어르신들의 정서,건강, 친목 도모의 장으로 발돋움했다.

지난 1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개최된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가 231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

올해 5화제를 맞은 전통민속놀이대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8개 동별로 진행된 예선전에는 서구 지역 231개 경로당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예선을 통과한 72개팀이 15일 치러진 본선에 진출했다.

남구 월산동에 어린이 안심 놀이공원 생긴다

광주 남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월산동에 어린이 전용 안심 놀이공원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18일 “공과 및 폐가를 정비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고, 해당 공간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심 놀이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심 놀이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월산지역아동센터와 월산 아파트 사이 중간 지점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를 철거해 70평 남짓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 연말까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말 정도에 완공할 예정이다.

북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민 참관단 모집

광주 북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참관할 주민 모집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5일까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일차에 실시되는 ‘테러 복합재난 대응 현장훈련’에 참여할 주민 참관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자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28일은 참여 기관·단체 소속 직원 비상소집 훈련, 29일에는 화재 대피 및 상황전파 훈련이 이뤄진다.

광산구, 오감 민족 유아숲 페스티벌 성료

19일 광주 광산구가 수완동 원당산공원에서 아이와 부모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감민족 유아숲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네 번째 열린 유아숲 페스티벌로, 민선7기 광산구의 핵심과제인 ‘시민 행복제강도 향상’ 정책의 하나.

광산구는 자연물로 가족사진 액자를 만드는 ‘네모네모 사랑해’, 생태놀이로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 ‘아껴주는 마음 좋아’ 등 5개 순회 숲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체험과 추억의 기회를 선사했다.

사전 신청 없이 공원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생태그림책을 전시하는 ‘숲으로 온 도서관’, 열매와 씨앗을 이용한 ‘동백씨방’ 장신구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함께 가을 주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소·염소·돼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백신 무료제공

전남도가 21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 달 동안 소, 염소,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

접종 대상은 소 55만 마리, 염소 12만 마리, 돼지 117만 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공수의를 통한,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공급받아 자체 일제접종을 하면 된다.

백신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4주를 경과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에 대해서는 접종을 삼가야 한다.

일제접종 후 1개월이 지난 11월 말부터는 백신형제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사에 나선다.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돼지 3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축산 관련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반드시 항체가 형성돼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며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접종해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한 적 없는 청정 전남의 명성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